

2023년 1월 21-22일 주말 예배

새로운 습관 4.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 만들기!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 만들기!

사도행전 24장 16절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대하여 . . .

그리스도인의 습관 만들기 두 번째에서는 ‘선한 양심’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습관을 만든다고 할 때는 행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 묵상의 습관 만들기, 기도의 습관 만들기, 감사의 습관 만들기, 좋은 언어의 습관 만들기, 칭찬하는 습관 만들기 등등.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이라는 이번 주제를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세계도 훈련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선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 혹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양심이 ‘선한 양심’ 혹은 ‘악한 양심’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가?

묵상 팀에서 나누었던 생각이 어쩌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묵상팀의 권순보 권사가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 처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권사님들이 나의 행동들을 보고 이전부터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만든 규칙을 잘 지키려는 성향들이 있다. 먼저 얻기보다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선한 양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서로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생각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는 선한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로 귀결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최지원 권사의 생각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 양심이 본인의 기준이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것이다. 개인마다 예민도, 민감성이 다르다.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발현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양심과는 다른, 챔버스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실은 ‘양심’이라고 나오지 ‘선한 양심’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챔버스가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는지 궁금하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 일반적인 양심의 기준이 나라고 한다면,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있을 때 내가 신경 쓰이는 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선한 양심인 것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은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양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조금 해석을 해 보자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은 ‘최상의 것’(하나님)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향해 ‘너 양심이 있으면, 양심대로 살아!’라고 질책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양심이라는 기준이 제각각 이었다는 것이죠.

챔버스의 묵상글에 보면 ‘**영혼의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이 ‘영혼의 눈’이다!

저에게 ‘영혼의 눈’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아직 죄에 오염되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오염된 우리의 눈이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나 욕심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노력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요즘은 참 눈 수술을 많이 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근시 난시 원시. . . 이전에는 안경 렌즈로 해결을 했는데, 요즘은 시력을 가로막는 것을 떼어 내기도 하고, 각막에 새로운 렌즈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눈’이 장착되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양심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해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성경이 ‘새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려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썼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확신으로 ‘이것은 선한 일이야’라고 행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주 ‘위선적’인 행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문제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양심적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총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즉, 로마 황제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동대 김형겸 목사의 글이 눈에 띕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The good conscience)’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敬畏) 아래에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의 가이드(guide)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심이다.

‘바른’과 ‘빛’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분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판단력을 가졌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최고 상태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양심의 지시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새번역)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선한 양심 가지기 그리고 세미한 음성 듣기

양심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챔버스의 생각은 그가 줄곧 붙잡고 있는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이 관계가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목상팀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목상하는 평신도들이 저보다 훨씬 깊이 목상하며 나누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성희 권사님이 챔버스의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양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대입해서 읽어보자고 말입니다.

→ “성령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심이 말할 때는 절대로 시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절대로 시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양심은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성희 권사님이 나눈 귀한 간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얇밉게 등장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하게 만든다. 대학을 휴학했을 당시의 일이다. 신생 잡지사에서 기자를 뽑았다. 정부 지원을 받아 출판하는 잡지라서 재원도 탄탄했고 사장이나 편집장도 매우 좋은 분들이었다. 나는 휴학생임을 알리지 않고 일단 이력서만 써서 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다. 이력서에 졸업생이라 썼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면접에서도 별 문제 없이 합격하여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추가제출 서류에서 문제가 생겼다.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나는 휴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었다. 인사부에는 가져오겠노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나서 그때부터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내기로 마음먹고 교묘하게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양심에 걸리는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입사하고 네 맘이 편하겠니? 네가 속인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땐 정말 엄마가 미웠다.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구나 싶었다. 그거 한 번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넘어가주면 안 되나 싶었다.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빈손으로 회사엘 갔다. 인사부장과 편집장을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조아리고 터덜터덜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며칠 후,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다. 휴학이 몇 학년째인지, 몇 학기나 남았는지 등을 물어보더니 바로 출근하라는 것이었다. 복학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며, 일단 다른 신입 기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출근하라는 것이었다. 이건 기적이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이룬 결과였다.

(UTS 박사과정에서의 경험 – ‘honest man!’)

우리의 영이 예민한 상태에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 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선하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오지 않고 아주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의 묵상 글 중에 이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입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열어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면에서 하나님과 ‘시비’(debate)거리가 생겼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세 감지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지?”라는 의문이 들고 내적으로 시비가 일어난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시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에 불순종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우리의 내적 비전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예민하게 하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었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챔버스가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되지만, 시비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경험해야, 하나님과 시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상 가운데 양심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논쟁과 시비를 경험하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논쟁과 시비’가 우주적인 거대한 문제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구체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묵상을 나누던 하현 집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문의 ‘시비’ 부분을 읽으며, 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쯤 퇴근길에 주님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주님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제 눈에 길바닥에 버려진 페트병 한 개가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뭐지, 저 쓰레기가 왜 내 눈에 들어오지,
뭐지, 주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건가,
뭐지,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는데,
뭐지 미화원분이 치우실텐데, 뭐지, 뭐지’

저는 걸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생각들을 스쳐 보내며, 그 페트병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저의 귀찮음과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 누군가의 역할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등등의 오만가지 의견들이 휩쓸고 갔을 때, 결론은 제가 주님께 대화를 걸었고,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기에 ‘옳은 것보다 선함을 택하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선한 양심이고, 시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가지는 습관이 필요한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양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양심’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캠버스의 묵상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결론입니다.

양심을 가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적인데,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거나,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즉 중심이 바뀌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날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이유는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아를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사순절에 나누었던 말씀의 시리즈가 [예수의 길에 서다]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예수의 길]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감하게 자신을 벗어나 지금까지 구축해 온 ‘자아’를 점차 내려놓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변화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일회적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자아가 죽어야 내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만 그럴까요?

수백억이라는 돈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유혹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유혹’이니까요. 하지만 단 돈 ‘만 원’의 문제에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작고 귀찮은 문제로 선한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민한 성령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보다 아주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12절 말씀.

//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누가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정도 승리를 했으면 자신에게 가해졌던 박해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원했던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망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떠들썩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함 바람을 타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 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려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번민할 때나, 세상의 소리들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주님 앞에 마주설 때, 주님은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어떤 크리스천이 ‘양심’에 관해 모아놓은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군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당나귀처럼 귀를 세우고,

소처럼 묵묵히,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진지하게 생을 살면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강제로서가 아닌 인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